

마지막 조선인 이방자 여사 “내 조국도 묻힐 곳도 한국”

63 영친왕 이은·이방자 여사 - 영원

영친왕(1897~1970(74세))
이방자 여사(1901 ~ 1989(89세))

어쨌든 흥유릉은 황제의 능이다. 일제의 입김에 의해 다소 요상하게 조성되긴 했지만 황제의 능이다. 흥유릉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30~40분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면 오솔길이 끝나는 부분에 작은 무덤이 보인다. 규모는 작으나 흙살문, 참도, 정자각, 비각 등을 갖췄다. 영친왕과 비 이방자 여사가 잠들어 있는 영원(英園)이다. 정식 안내관은 없고 철판에 페인트 글씨로 영친왕 내외의 무덤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흥유릉에서 함께 관리한다. 비공개이나 관리인 청년의 배려로 그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오솔길을 달렸다.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李垸). 고종의 넷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귀비 임씨(貴妃 嚴氏)이다. 순종과는 이복형제간이다. 1900년(광무 4) 8월 영왕(英王)에, 1907년(융희 1) 황태자에 책봉됐다. 1907년 12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에 의해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에 인질로 잡혀갔다.

1910년 국권이 일제에 의해 강탈되면서 융희황제(隆熙皇帝 : 뒤의 순종)가 이왕(李王)으로 폐위되자, 그도 황태제에서 왕세제(王世弟)가 됐다. 1920년 일본의 흡수정책에 따라 일본 왕족 나시모토노미야(梨本宮)의 딸 마사코(方子)와 정략결혼을 했다.

1926년 순종이 죽자 형식상으로 왕위계승자가 돼 이왕이라고 불렸다. 일본에 억류돼 있는 동안, 일본 육군사관학교, 육군대학을 거쳐 육군중장을 지냈다. 물론 허울뿐인 계급이다. 일제가 그에게 사단장, 군단장 등의 지휘관 직책을 부여할 리 만무하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귀국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 뒤 1963년까지 일본에 머물렀다. 1963년 국적을 회복하고 귀국했으나 귀국 당시 이미 뇌혈전증으로 인한 실어증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

영친왕으로 불려야 하나? 영왕으로 불려야 하나?는 논란도 있다.

이은씨는 대한제국이 수립된 뒤에 태어났기에 처음부터 신분이 '황제의 아들'이었고 1900년에 '영친왕(英親王)'에 책봉됐다. 왕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왕'에게는 친왕(親王)이라는 호칭을 쓴다. 이은씨는 친왕이었고, 왕호에 붙여준 이름이 '영(英)'이라서 '영친왕(英親王)'이 된 것이다.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고종 황제가 내린 조서나 각종 제도 등에 모두 '영친왕'이란 왕호를 쓴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가 1907년에 친왕보다 격이 높은 황태자로 책봉되자 영친왕이란 왕호(王號)가 공식 폐지됐다(순종실록 순종 1년 8월 24일조 참조).

그런데도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측은 "이은씨는 '영왕'으로 책봉됐으며 영친왕이란 표현은 일본 황실이 예우의 명목으로 붙인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영왕 이은'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도 바르게 고쳐

야 한다. (송우해 소설가)
종약원 측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천황 정비에게서 난 아들(황자<皇子>)과 그런 아들이 정식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황손<皇孫>) 외에 천황의 형제가 친왕(親王)이 된다. 따라서 이런 일본 황실 전범 규정을 고려할 때 이왕에 대한 친왕 책봉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일본이 조선왕실을 포섭하려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영친왕은 1907년 황태자에 책봉됨과 동시에 그해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11세 나이로 일본 유학을 가게 된다. 이때 고종과 엄황귀비는 황태자가 방학 때마다 본국을 방문할 것을 조건으로 유학을 허락하지만, 영친왕은 이후 엄황귀비가 사망하는 1911년까지 귀국하지 못했다. 1910년 일본과 대한제국이 강제 합병되면서 왕세자 이은으로 강등됐고, 1926년 이복형 순종이 사망하자 조선 이왕으로 불리게 됐다.

고종은 영친왕이 황태자로 책립되기 전에 민감완(1897~1967)이란 소녀를 영친왕의 반려로 내정해 이미 약혼예물까지 교환했지만, 일본정부는 조선왕세자의 부인을 일본 여인으로 앉히려 그 약혼을 강제로 파기하고 일본황족인 나시모토궁 수정왕의 딸 마사코(이방자)를 영친왕의 약혼녀로 공개했다(1916). 고종은 이에 대단히 분개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역정을 냈으나 무력(無力)한 분노에 불과했다.

1919년 영친왕과 마사코의 결혼식이 예정된 그해에 고종은 돌연 사망하게 돼 다음해인 1920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해인 1921년 첫 아들을 낳지만, 1922년 마사코비가 생전 처음 방문한 조선에서 아들 진을 낳았다. 그리고 1931년 둘째 아들 구(1931~2006)를 낳았다.

영친왕은 조선왕실의 재산과 일본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으로 당시 일본 왕족 중에서는 가장 부유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하게 되면서 영친왕과 마사코비 모두에게 일본왕족의 자격이 박탈돼 재산을 몰수당했다.

영친왕은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고 싶어 했지만, 이승만 정부는 영친왕의 귀국을 거부했다. 그렇게 고국을 그리다가 1963년 11월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주선으로 국적을 회복하고 이방자 여사와 함께 귀국했다. 그러나 그는 두 다리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이동 침대에 누워 겨우 입국할 수 있었다. 그리고 7년 동안 투병 후 1970년 74세를 일기로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비, 이방자 여사는 1989년 4월 30일, 창덕궁 내 낙선재(樂善齋)에서,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녀의 죽음은, 파란 많았던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왕녀로 태어나, 한국의 마지막 황태자 비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88년 일생은 이 여사가 평소 즐겨 쓰던 문구처럼 '대공무아(大公無我)'한 것이었다.

1901년, 일본 동경에서 메이지(明治) 가문의 장녀



이방자 여사가 생애 마지막을 보낸 낙선재의 가을(위), 유릉에 참배하는 이방자 여사(아래).

해방된 조국 돌아오고 싶었던 영친왕 1963년에야 귀국 이방자 여사 낙선재 지키며 20여 년간 장애인 봉사 전념

로 태어난 그는, 19세 되던 해, 일본 왕실의 내선일체(內鮮一體) 융합 정책에 따라, 일본에 불모로 잡혀 온 고종의 아들 이은 왕세자와 정략결혼을 했다.

광복 전에는 마국의 한을 되찾는 남편의 동반자로, 광복 후에는 패망한 일본이 남긴 무국적자로, 격랑의 한일 근세사를 헤쳐 나와야 했다. 광복이 되자, 국적도, 왕실의 특권도 상실한 채, 곤궁한 생활을 해오던 영친왕 부부는 1947년 미 군정하에서 '재일 한국인'이라는 평민 신분으로 격하돼 생활고를 겪었다.

1963년 영친왕과 함께 환국했으나, 1970년 영친왕마저 세상을 떠나자, 홀로 창덕궁 낙선재를 지키며 사망할 때까지 약 20여 년간을 장애자 봉사 활동에 전념했다. 귀국 후 전부터 구상해 왔던 장애인 사업을 추진해 1963년부터 1982년까지 신체장애자재활협회 부회장직을 맡았다. 1966년 1월 사단법인 자행회(慈行會)를 설립해 정신박약아를 위한 복지사업에 헌신했다.

1967년 11월에는 YMCA에서 빈민돕기사업을 하

던 재단법인 보린원(保隣園)을 인수해 농아와 소아 마비아를 위한 명휘원(明暉園)을 설립했는데, '명휘(明暉)'는 영왕의 아호에서 따온 것이다. 또한 명휘원의 교육기관으로 1978년 명휘회관(明暉會館)을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세웠다.

이곳에서 교육받는 불우한 이들의 자립을 위해 일본에서 배웠던 칠보를 만들어 파는 등 헌신했다. 1971년 경기도 수원시 탐동에 자혜학교(慈惠學校)를 설립해 갈 곳이 없는 정박아들을 교육시켰으며, 1973년 자혜학교 여자기숙사도 설립했다.

같은 해 그의 숙원사업이던 영왕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켜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영왕과 왕가의 유물들을 보존하는 데 마지막 사명을 다했다. 이후에도 자행회와 명휘원의 총재직을 계속 맡아 활동했다. 직장암으로 수술 받고 일본으로 건너가 아들 구(尙)와 지내다가 1989년 귀국했으나, 이 해 4월 30일 낙선재에서 죽었다. 이들 부부의 죽음에는 '승하'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한다. 왕조가 없는 왕, 왕비였기 때



문이다.
그녀는 평생을 '내 조국도, 내가 묻힐 곳도 한국'이라는 신념으로 봉사한 마지막 조선인이었다. 그의 둘째 아들 구씨는 부모님 묘에서 20여m 떨어진 곳에 묻혔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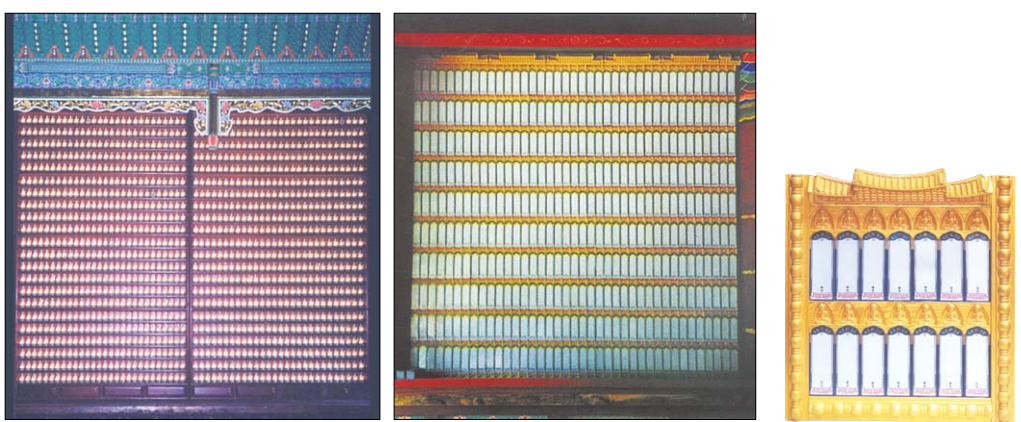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1개금불 1비취옥불 1백옥불 1대나무숫불
규격 :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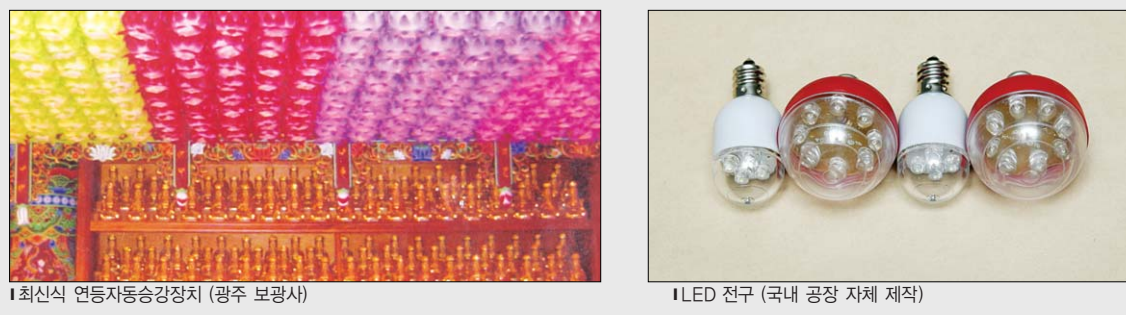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1LED 인등 (해남 대흥사) 1영가위패단 (파주 보광사)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최신식 전선 자동 연등 승강장치



1최신식 연등자동승강장치 (광주 보광사) 1LED 전구 (국내 공장 자체 제작)

- LED전구는 국산품만 사용합니다
- 전선은 KS 케이블을 사용하며 안전합니다
- 전문기술진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버튼 하나로 上·下 조절하며 명찰과 연등 달 때 편리합니다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대나무숫불, 영가위패단,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옥촛대, 연등전선승강장치

正宇불교예술원(구. 정심원) www.jeongwoo.info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욱(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